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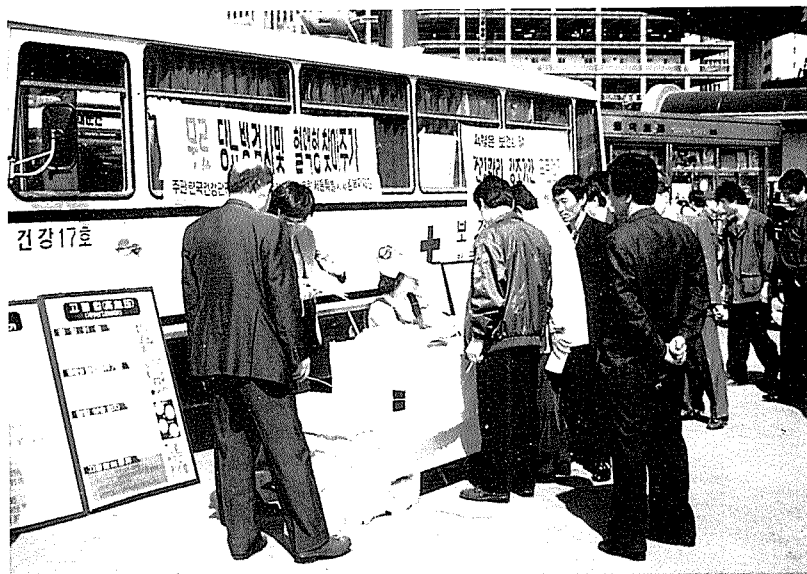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각종 건강 검사를 실시한

건강관리협회 가두 무료 건강검사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건강관리강조주간에 실시



매년 4월의 세째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때를 “건강관리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20여개소에 가두 무료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각종 기본 건강검사와 건강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었던 '91년도 가두 건강검사는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협회에는 보다 활발한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총 1만여명에 대한 혈당검사·혈액형검사·혈압측정·요검사·기생충검사 등의 건강검사와 상담을 마친 서울지부 가두 무료 건강검사의 현장을 이번 호에 소개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바쁜 행인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건강검사”

따사로운 4월의 오후, 서울역 광장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평소엔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가 멀리서 부터 눈에 뜨인다.

“건강관리 강조주간 가두 무료 건강검사”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붙은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버스가 바로 그것이었다.

“건강검사”라는 문구 때문일까.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버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선다.

접수대 앞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 계몽 전시판에 쓰인 질병에 관한 안내문을 읽는 사람.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하는 사람 등등으로 검진 버스 안팎은 금방 장사진이 되어버렸다.

• 신문에서 안내보고 아침부터 기다렸다

기차를 타기 위해 나왔다는 한 남자는. 『기차 시간이 남아서 다방에나 갈까 하고 서성이다가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아주 좋군요.』라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접수대를 향했다.

또 『신문에서 무료건강 검사안내를 읽고는 아침부터 서울역광장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한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면서 건강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건강검사’라는 문구 때문일까.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행인들이 버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선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장애인이 검사받으러 왔을 땐 가슴 뭉클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몇몇 장애인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왔던 것. 보통 사람들에게 비해 건강검사의 기회가 별로 없었을 듯 싶은 그들에게, 몇가지 되지 않는 검사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졌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 매년 4월 세계주에 실시

건강관리협회의 가두 무료 건강검사는 매년 4월 세계주 1주일간 운영된다. 매년 맞게 되는 보건의 달에 협회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강조주간”을 설정하고 각 시도지부별로 관내 주요 지역에 1~3개의 가두 무료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기본적인 건강검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된 것은 70년대 기생충 퇴치를 위한 집중계몽을 실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건강검사 등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 몇년 사이의 일이다.

◦ 검사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준다

올해의 무료 검사는 서울의 서울역, 신세계 백화점 앞, 천호동 강동빌딩 앞의 3개소를 비롯해 전국 20여개 지역에 설치된 가두상담소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실시되었다. 검사종목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혈액형 검사, 혈압측정, 요검사, 혈당검사, 기생충 검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기생충 검사의 경우 이상이 있을 때는 그자리에서 투약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원할 경우 건강상담을 해주고 검사 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준다.

◦ 뜻밖에도 당뇨를 발견한 아저씨

혈압 측정을 해보려고 들렀던 50대의 아저씨는 이 검사에서 뜻밖에도 당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몇몇 장애인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 왔을 땐 가슴이 뭉클해졌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는 것 외에는 평소에 건강에 대한 어떤 이상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당뇨병의 주증상이라는 다음, 당뇨, 다식의 증상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뜻밖이군요.』

그는 당뇨에 대해 몇가지를 더 물은 후 더 늦기 전에 당뇨를 발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바로 계검사를 하러 가봐야 겠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몇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하면서...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다는 40대의 주부. 그녀는 소변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검사를 비롯한 몇가지 건강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상담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부속의원을 방문하겠다고 말하며 위치를 물어오기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액형검사, 혈압측정, 요검사, 혈당검사, 기생충 검사 등이 주종.



◦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이런 흐뭇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두 상담소에 접수를 맡고 있는 서울지부 정희상 계장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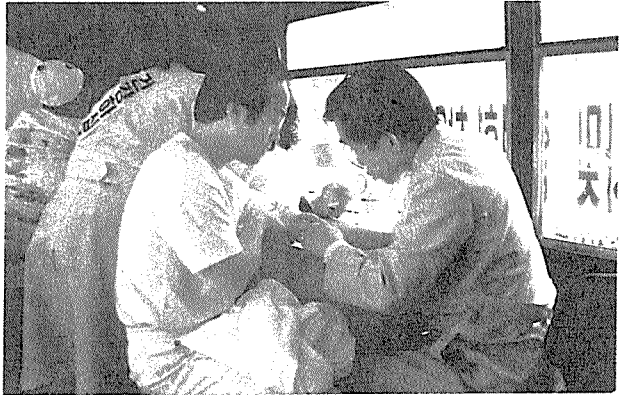
『검사를 하면 꼭 무슨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지는 몰라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 믿을 수 없다고 가우뚱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또 『그뿐이 아닙니다. 검사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적절한 치료도 해달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타박상 치료를 부탁하시는

건강을 지키는 현장

분도 있습니다』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의 혜택이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인다.

우리나라 의료 혜택이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 기쁨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상담소 설치를 위해 고생했던 뒷이야기도 있다.

『혹시 무슨 약이라도 팔아 먹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설득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좀 당황했던 것은 상담소 설치 첫날인 15일에 이미 사전 승인이 난 3개 장소 중 1개 장소에서 회사자체 사정으로 승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홍보가 다 된 상황이어서 번복하기도 어려웠지만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기다리다가 발걸음을 돌릴 것을 생각하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다행히 다음날부터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한편 이곳 상담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정기 건강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달

건강을 지키는 현장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가능하다면 보다 더 많은 종목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해 오기도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종목수를 늘려 보다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보다 더 많은 검사혜택 줄 수 있길...

가두 무료 건강 검사가 실시되었던 건강관리 강조주간의 1주일. 검사 현장에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그들 중에 반수 이상이 병원의 문턱을 별로 밟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데에서는 알지 못할 안타까움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다 더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달해 줄 매개체가 필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발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강관리사업은 바로 이곳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검사의 현장에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애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화번호 변경 안내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및 서울지부의 전화번호가 '91년 4월1일 0시를 기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본부	605-2016 (사무총장실) 605-4851~2 604-5677	601-2016 (사무총장실) 601-6141~5
서울지부	605-3056, 605-4057 605-3104, 696-1089 603-6129	601-7161~5

〈한국건강관리협회〉